

광주시 '탁상 폭염 대책'...시민 고통만 키웠다

시내버스 운행 줄여 평별 속 장시간 대기...지하철역 선풍기 태부족 어르신 안부 묻는 기존 복지시스템 '재탕'에 물놀이 안전 대책 허술

올 여름 광주에 기상 관측 이래 전국 최고의 폭염이 덮치면서 시민들도 역대급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대책은 '어르신 안부 묻기' 등 기존 사회복지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시민을 배려한 디테일한 폭염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인 노약자 등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한달간 운행횟수를 늘리기는커녕 여느 해처럼 이용객이 적은 여름방학기간이라 되려 운행횟수를 줄였고, 어르신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일부 역은 선풍기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광주시는 또 폭염 영향으로 도심 인근 하천 내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생명을 보호할 안전장비 설치가 시급하다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천 물놀이 사고 발생시 광주시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장실(78·광주시 동구)씨는 "(공무원들이)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진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 대책을 수립하니 시민의 (폭염) 고통을 제대로 알겠느냐"면서 "공무원 자신도 대부분 광주시민일 것이고 그 부모들도 올 여름 맹벌 아래서 수심분씩 시내버스를 기다렸을텐데, 제발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시민의 피부와 와 닿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독거노인-거동 불편자 등 광주지역 폭염취약 계층은 모두 1만878명에 이른다. 시는 재난급 폭염이 장기화하자, 시민의 폭염 피해를 줄이겠다며 각종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대책은 생활관리사, 노인 돌봄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2500여명을 통해 폭염취약 계층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하루 1~2차례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기존 노인돌봄 복지 시스템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광주 첫 온열질환 사망자인 80대 여성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 들렀지만 선풍기에 의지한 채 열대야를 견디다 세상을 떠났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선 매 방학기간마다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감축(차)운행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 세금을 들여 준공영제로 운영중임에도 수에 집착한 나머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 여름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기준 66개 노선에서 119대(12%)를 줄여 운행했다.

이 때문에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평소보다 운행간격이 최대 9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노선은 최대 15분 가량 늘어났다.

그나마 젊은층은 버스도착시간을 미리



목마른 나무에 물주머니 19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인근 가로수에 나무의 수분 공급을 위한 물주머니가 달려 있다. 북구청은 연일 지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한 가로수 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가로수 등에 물주머니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덕분에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 노인계층이나 청소년의 경우 맹벌 아래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들의 도심 속 피서지이기도 한 도시철도 일부 역사의 배려없는 폭염 대책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8일에는 참다 못한 한 시민이 광주 도시철도 1호선 평동역에 선풍기를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접수했다.

종착역인 평동역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차 후 더위를 피해 잠시 쉬는 곳으로 유명한데, 냉방은커녕 선풍기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원 접수 후에야 사실을 파악한 광주시 교통정책과는 "선풍기를 추가 배치하고 광산구와 협의해 평동역 인근에 무더위 쉼터도 조성하겠다"고 뒷북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올 여름에는 유독 광주 도심

내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수난사고를 당한 시민이 많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주시의 안전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실제 광주에는 광주천·증심사천·풍영정천 등 210km에 달하는 하천이 있고 최고 수심이 2m가 넘는 하천이 상당수 있는데도, 하천에 설치된 구멍함은 겨우 19개 뿐이었다.

올 여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폭염대책에서도 주요 하천 인근 구멍함 배치 계획은 빠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안서 승합차 바다 추락 2명 실종...2명 탈출

19일 오후 2시께 신안군 하의도 후광리 선착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운전자 A(60)씨 등 2명은 탈출했으나 김모(85)씨 등 80대 부부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선착장을 20여m 앞두고 굽어진 길을 가던 차량이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6명의 잠수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

완도 청산도 해안가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완도군 청산면 해안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완도군 청산면 소모도 해안가에서 이 마을에 사는 A(여·79)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했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전날 정오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집을 나선 A씨가 해안가를 걷다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외국인등록증 찾아준 고속버스기사

○...인천공항발 광
성대발 주행 금호고속버스기
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에서 휴대전화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린 고령인 3세를 도운 사실이 알려
져 훈훈.

○...19일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금호고속소속고속버스기사박철수(59)씨
는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
널에서 광주행 고속버스를 탑승한 우
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안자미
라(여·38)씨가 대전휴게소에서 잃어
버린 휴대전화와 외국인 등록증을 찾
아줬다는 것.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된 박
씨는 대전휴게소에 전화를 걸어 분실
사실을 알린 뒤 안씨의 분실품을 찾아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고려인 마을
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돌려줬는데, 박
씨는 "당시 (안씨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승객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
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6년만에 태풍 오나...23일 여수 상륙할 듯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오는 23일 여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광주-전남의 태풍 상륙은 2012년 여름 잇따라 발생한 태풍 카눈, 덴빈, 산바 이후 6년 만이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괌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솔릭이 23일 오전께 여수 북북동쪽 6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풍은 중심기압 955hPa에 최대풍속 40m/s, 강풍 반경 330km로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급이다.

태풍은 22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 23일 오전 여수 등 남해안을 통해 한반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태풍 솔릭이 당초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동해 쪽으로 빠질 것으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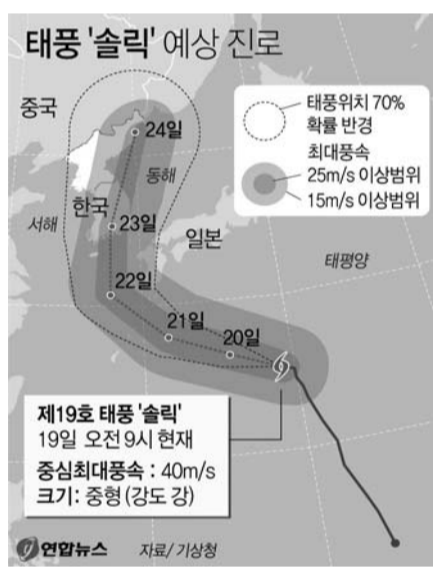
다봤으나,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이보다 서쪽인 여수쪽을 지날 것으로 예보를 수정했다.

'솔릭'이 접근함에 따라 22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3~2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와 남해의 파도 높이는 5~8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밤 9시께 괌 동쪽 1020km 부근 해상에서 제20호 태풍 '시마론(CIMARON)'도 발생했다. 이 태풍은 오는 22일 일본 오사카 인근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태풍 솔릭과 시마론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는 이날 낮 최고기온 32.6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길었던 폭염(낮 최고기온 33도 이상) 최장 지속일수가 36일째에서 깨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29일 까지 낮 최고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산단 안전사고 잇따라...이틀새 3차례나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가스유출,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가 최근 이틀새 3차례나 발생했다.

지난 18일 밤 9시 3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뜨거운 고무 연료를 담은 '핫박스'가 가열되면서 화재가 났고, 공정이 중단돼 압력이 올라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55분께에는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45)씨 등 4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열교환기를 청소하던 중 합성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BD) 가스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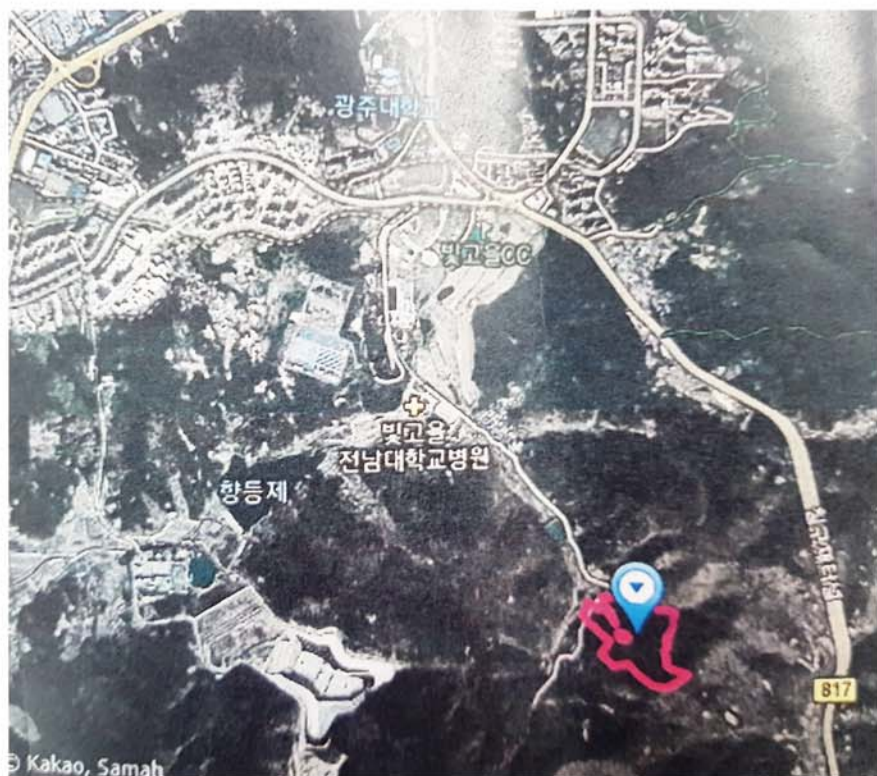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사고는 열교환기를 청소하기 위해 투입된 150t 크기의 유압 크레인이 가스관 밸브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에는 여수산단 롯데케미칼 원료 공장서 재료가 불안전 연소하면서 10여분간 검은 연기가 외부로 유출됐다. 공장 측은 곧바로 반응기를 다시 돌려 공정을 정상화했지만, 이날 발생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화재신고가 이어졌다.

한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9일 여천NCC 1급 발암물질공장 가스유출사고 대책 촉구 성명서를 내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고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종합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사고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